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음 6월 29일) 제234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미국을 방문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교류단이 세계 농업계의 '애플'로 불리며 미국내 3대 스마트팜 기업 중 하나인 '에어로팜'을 찾아 인공 구조물 내에서 생육환경을 제어해 아파르트형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수직농장을 둘러보며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농산업 · 벤처 지원 정책 벤치마킹

송하진 도지사, 뉴저지주 스마트팜 기업 '에어로 팜스' 식물농장 견학
벤처창업 지원기관 SBA 사무소에서 기술창업 기업 지원정책 '열공'

송하진 지사와 방문단 일행은 전북 농업의 기술력 제고와 고령화된 농촌에 청장년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으로 떠오르는 스마트팜 사업 추진과 관련, 뉴저지주 소재 미국 최첨단 농업기술분야 신생 벤처그룹인 '에어로 팜스'를 방문했다.

세계 농업계의 '애플'로 불리는 '에어로팜' (대표 데이비드 로젠버그)은 2004년 설립되어 미국내에서 3대 스마트팜 기업중 하나로 꼽히며 농업기술 분야에서 대표적인 신생 벤처기업으로 전 세계에 9개의 수직농장을 운영 중에 있다.

뉴저지 주 뉴어크시 공업단지 내 폐공장을 개조하여 세계 최대 규모(연면적 6400m²)의 수직농장을 개조하여 빈민가였던 지역사회에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생의 한 축으로 자리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기업을 방문하게된 주요 목적은, 농업이 전북도의 3대 주요 정책중 한 분야로 특히 미래농업 산업분야인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정책 발전을 위해 우수기업의 선진사례를 견학, 벤치마킹해 정책에 활용할

기 위함이다.

특히, 방문단에 참여한 농식품인력개발원 최연규 박사는 식물농장의 현재 기술과 미래성장 가능성, 농업 ICT기 자체 성능 향상, 제품 활용분야 등에 대한 실무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고 싶다고 전했다.

미국 중소기업지원기관 US-SBA 뉴저지사무소는 주내 중소·창업기업의 활력 및 설립 지원과 지역사회에 경제 회복을 통한 국가 경제 강화 및 유지를 목적으로 지역내 스타트업·소기업, 초기 단계의 신생기업과 고성장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벤처 창업회사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개발 기술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양하며 벤처기업들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기관이다.

그리고 MVP는 뉴어크 민간창업보육 기관으로, BB 기술 전문회사에 투자하는 벤처회사로서 초기 단계의 벤처 스타트업 회사를 주요 대상으로 심화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수료 참가기업들은 평균 6

개월 이내에 67% 이상의 초기 투자 목표 달성, 평균 2배의 실적 증가 평균 2백만 달러의 투자자본 확보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지식 기술 기반 창업교육과 사업자금 지원 등 기술창업 유도에 관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IT, 금융 및 투자, 문화, 관광산업을 아우르는 전 분야에 걸쳐 혁신형 창업생태계 조성에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또 다른 기업방문 행보로 오는 8월 3일(현지시간 2일) 송하진 지사는 지난 2016년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방문했던 워싱턴주를 3년 만에 다시 찾아 세계제일의 기업 '아미존' 본사를 견학하고,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후 귀국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2면 -전북도, 우위관리 강화

5면 -정읍서 '과학기술 대토론회'

'협업'으로 지역 홍보

전북도 국제교류센터
전북 산업인력공단과 협약

전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는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양성모)와 도내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을 통해 전북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 전북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협력, 상생 및 지속가능·동반성장 사업 발굴 등을 위한 협업을 통해 향후 전라북도 테마답사 운영, 외국인 봉사단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호 센터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와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라북도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 및 2023 새민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등 전라북도의 매력적인 요소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각종 관련 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社告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2019 제9회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

일시: 2019년 8월 3일(토) 오후 2시
장소: 전주 중부 비전센터 5층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시키고, 이들의 건강한 놀이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19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를 오는 8월 3일 전주 중부 비전센터 5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공동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연맹 전주매일신문사 JJC 지방자치TV
후원: 동아보건대학교 미술학과 전주시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 (063-288-9700)

꽃새우 수매회사 환경오염 주장 '안될말'

군산시, 서해안 정치권·지자체 연대 공동 대응 준비

군산시가 꽃새우 수매회사의 서해안 환경오염 주장에 대해 서해안 민생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서해안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연대로 공동 대응기로 해 꽃새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인준 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연안조망 꽃새우 가격하락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서해안 환경오염에 따른 회사의 꽃새우 수매 중단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확인하고 회사 측의 일방적 주장일 경우 범 서해안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시장은 서해안환경 오염주장에 따른 꽃새우 수매거부는 서해의 모든 수산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서해안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상세한 현황 파악에 이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군산시는 전북도와 충남 서천군 등 서해안근의 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을 위한 연대의사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꽃새우 수매회사 측에 공문발송과 함께 본사를 방문, 수매물량 배정을 요청하고 수협중앙회를 통한 군산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대책으로 꽃새우 특산품개발 및 수산물 건조가공공장을 설립해 박람회와 축제 등을 통한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현대옥이야기

①현대옥의 수오지심 ②신메뉴이야기 ③지역사회 참여 ④콩나물국밥의 맛 ⑤스토리가 있는 현대옥콩나물국밥 ⑥소중한 조리 유산-토령국밥 ⑦오늘은 엄마를 쉬게 하자 ⑧새로운 시작

스토리가 있는 현대옥콩나물국밥

01 02 ...중략...

03 그 국밥은 시절의 아픔을 안고 전주 남부시장의 한 구석에서 가족의 생계와 자녀의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써 현대옥이라는 이름의 식당으로 탄생됩니다. 먼 훗날 콩나물국밥으로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명성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09 2008년 11월 25일 대한민국의 대표 통신사 연합뉴스의 전주주재원은 속보를 타전합니다. "전주의 명물, 주인바뀌 새 출발" "전주의 식당사업가가 인수..." 현대옥이 지금의 2세대 현대옥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졌더라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갈림길, 가보지 않은 역사는 모를 일이다.

04 05 ...중략...

06 어느덧 '10년 단골은 단골도 아니다'라는 현대옥 매니아들이 늘어나고 "전주에 가면 현대옥에 갔다 와야 제대로 대접받는 것이다"라는 전주의 명물로 떠오릅니다. 인터넷의 카메라 블로그를 통하여 현대옥은 전국적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콩나물국밥으로는 대한민국 최고"

10 어쨌든 현대옥은 '식당업은 그 식당을 통하여 그 분야의 세상을 바꾸는 작은 혁명을 하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어느 식당사업가와 그를 발칵하고 있는 호텔 출신 셰프의 손에 넘겨져 있었다. 맛비법을 전수받은 그들은 스스로를 2세대 현대옥이라 명명하고 '전주콩나물국밥의 국민음식화'라는 깃발을 만들어 전주 중화산동에 원차게 내걸었다. 그리고 전주 콩나물국밥시장의 판도를 단박에 압도합니다.

07 ...중략...

08 한 때는 소녀였던 양옥련! 30년 세월을 서서 일해왔던 양 여사께서는 무릎관절 수술로 더 이상 식당경영을 할 수 없게 되어 맛비법과 추억을 남기고 은퇴하시게 됩니다. 이후 전주의 많은 시민들은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며 '여사'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전주콩나물국밥의 전설, 양옥련 여사!

11 잊목 콩시루에 물을 주던 재미 또는 괴로움의 추억 가난과 근검절약의 상징이었던 콩나물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시대가 흘러 그 콩나물이 지금은 '콩으로 만든 웰빙 새싹채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 콩나물국밥의 위치는 어느 정도에 있을까? 정말 전주음식을 넘어 국민음식이 되어 있을까? 지나버린 역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지만 앞으로의 역사는 일단 무지 노력하고 볼 일이다 라는 현대옥 생각...

* 이 '스토리가 있는 현대옥콩나물국밥'은 2011년에 작성된 것으로서 현대옥홈페이지 자료실에 실려있습니다.

